



LG 트윈스와 KIA 타이거즈 선발 마운드의 화제가 잇달고 있다. 왼쪽부터 LG 케이지스 켈리, 야담 플러트, KIA 선 놀린, 로니 윌리엄스.



연합뉴스

쌍둥이-호랑이 선발 마운드 '희비 쌍곡선'

프로야구 LG 트윈스와 KIA 타이거즈가 여름 분위에서 장판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올해 대권을 노리는 LG의 약점은 선발진이었다. 리그 정상급 수비력, 공격력, 볼펜진을 갖췄으나 선발진이 흔들리면서 시즌 초반 부진을 겪었다. 특히 국내 선발자들이 4~5월 부상과 부진을 거듭했다. 5월말까지 LG 선발진의 평균자책점(4.44)과 소와 이닝(243)은 9위에 그쳤다. 켈리 스타트(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 투구) 역시 16회에 최하위 한화 이글스(8회) 다음으로 낮았다.

이달 들어 활황달했다. 외국인 투수 2명이 중심을 잘 잡아주고, 국내 선발들이 제 몫을 하면서 '계산이 서는 야구'가 가능해졌다. 에이스 케이지스(33)는 6월 3경기에서 모두 7이닝을 소화하며 3승에 평균자책점 1.29를 올렸다. 야담 플러트

LG 약점 꼽히던 선발 활황달데 외국인 원투펀치 안정적인 활약에 토종 영건 이민호·김윤식도 제 몫 12G연속 QS 잘나갔던 KIA 봉고 한승혁 최근 5G중 5이닝 딱 한번 놀린·로니는 부상과 부진 반복

코(31)도 4경기에서 3승을 올렸고, 평균자책점 1.75를 기록하며 더 위력적인 투수가 됐다. 영건 김윤식(22)은 최근 2경기 연속 6이닝 이상 소화했다. 이민호(21)는 다소 기록을 보였으나 8경기 연속 5이닝 이상을 책임졌다. 최근 1군에 복귀한 이인규(30)도 18일 키움 히어로즈전에서 5일 2실점(2자책점)도 나름 호투했다.

LG 선발진은 6월 평균자책점 2위(2.94)를 달리고 있다. 최근 7경기 선발부

수 평균자책점은 2.27까지 떨어진다. 이 기간 전체 1위다. 7경기 모두 선발투수가 5이닝 이상을 던졌다. 켈리 스타트는 4번, 켈리 스타트 플러스(선발 7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 3번을 했다.

반면 5월 고공행진을 펼친 KIA는 최근 선발진이 무너져 고전하고 있다. KIA 선발투수들은 4월 23일 키움전부터 5월 6일 한화전까지 12경기 연속 켈리 스타트(60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를 해냈다. 양현종(34)-선 놀린(33)-로니 윌리엄스(26)-한승혁(29)-이외리(20)로 이어지는 선발진이 원활하게 돌아갔다. 김중국(49) 감독이 6선발 체제를 고민할 정도로 질과 양 모두 쏠렸다.

5월말까지 KIA 선발진의 평균자책점은 3.55로 리그 평균 3.78보다 뛰어났다. 그러나 6월 들어 선발진 평균자책점이 6.06으로 급등하면서 '도둑'인 선발진의 한 축인 한승혁과 외국인 투수들이 동반 부진한 탓이다. 한승혁은 개막 후 6경기

에서 2승 무패 평균자책점 2.52로 맹활약했다. 그러나 5월 중순부터 페이스가 급격히 떨어졌다. 최근 5경기에서 5이닝을 채운 건 단 1번뿐이다. 휴식 차원에서 한 차례 2군에 다녀오기도 했으나 여전히 불안한 투구를 하고 있다.

놀린과 로니는 팀에 전혀 되지 않고 있다. 놀린은 5월 25일 종이리 부상으로 다시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윌리엄스는 허벅지 부상으로 4월 28일 제외돼 한 달간 회복하고 5월 21일 복귀했으나 팔꿈치 통증으로 9월 31일 엔트리에서 빠졌다. 11월 만에 선발 등판한 19일 삼성 라이온즈와 경기에서도 KIA 코치진에게 5승을 시켰으며 KIA 코치진에게 5승의 시름을 안겼다.

KIA는 새 외국인 투수를 모색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영일 리스트 상단에 있던 선수들이 미국에 잔류하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이경민 기자 k2018@sportbiz.co.kr

K리그2 중위권 물고물리는 혼전

안양·충남·경남·서울·김포·전남 승격 PO 놓고 치열



반월점에 가까워진 K리그2(2부) 중위권은 혼전 양상이다. 특히 승격 플레이오프의 마지노선인 5위 싸움은 그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K리그2는 예측하기 어렵다. 매 시즌 예상과 다른 전개로 진행됐다. 22일 오전 기준으로 올 시즌은 단독 선두 광주FC(14승 4무 2패·승점 46)가 리그를 주도하고 있다. 그 뒤로 대전하나시리즈(10승 7무 3패·승점 37)와 부천FC(9승 4무 6패·승점 31)가 추격하는 형태다. 그 아래 순위의 최근 판도를 놓고 본다면 최근 감자가 없다. 4월부터 9월까지 최대 리그에서 연패를 기록한 팀이 단 한 팀도 없다. 서로 물고 물리는 혼전이 이어지고 있다.

4위 FC안양(7승 7무 5패·승점 28)의 최근 다소 흔들리는 모양새다.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에 그쳤다. 안양은 기세가 계속 이어지면 5위 밖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안양과 승점이 같은 5위 충남(7승 7무 5패·승점 28)은 상승세를 탔다.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마크하며 차근차근 승점을 쌓았다. 광주와 함께 리그 내 최고의 끈을 수비 면으로 빛냈다. 19경기에서 16실점만을 기록했다.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기세를 이어간다면 4위 이상의 순위 상승도 꿈꿔볼 만하다.

6위 경남FC(6승 6무 7패·승점 24)는 힘들었던 3월과 4월 이후 최근 분위기

를 다잡는 데 성공했다. 최근 3경기 무패(1승 2무)로 6위까지 올라섰다. '에이스' 타이오 오로보(29·브라질)의 활약이 눈부시다. 최근 3경기 연속 득점을 터트리며 리그 11골 2도움을 마크했다. 득점 1위, 공격 포인트 1위다.

7위 서울 이랜드(4승 10무 5패·승점 22)는 최근 5경기에서 1패밖에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머지 4경기를 모두 비기며 승리는 없었다. 수비는 만족스럽다. 19경기 18실점이다. 경기당 1골 이하로 틀어막고 있다. 그러나 빈곤한 득점력이 발목을 잡는다. 리그 최솟값에 그쳤다. 19경기 17골로 경기당 한 골을 채 넣지 못하고 있다.

'막내 구단' 김포FC(6승 5무 10패·승점 20)의 선전은 중위권 순위 싸움을 안갠속에서 빠뜨렸다. 김포FC는 3월 중순 4연패를 기록하는 등 순위 하단으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어느새 중위권 다툼에 발을 들였다. 최근 5경기 2승 2무 1패로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 중이다. 18일에는 홈에서 부천을 2-1로 꺾으며 저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시즌 중 감독 교체라는 강수를 둔 전남 드래곤즈(4승 8무 8패·승점 20)는 좀처럼 리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 5경기 4무 1패를 기록했다. 3연패 사슬을 끊은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4경기 연속 무승부도 그치지 승점 3을 거머쥐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시즌 최종 부임한 이광민(48) 감독의 속구가 얼마나 빠르게 자리 잡느냐가 중위권 도약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성현 기자 ksh@sportbiz.co.kr

스트라이크존 깊은 불신의 늪... 비디오 판독·AI가 답?

올 시즌 5명이나 항의하다 '퇴장' 기술적인 문제로 도입 시간 걸려

프로야구는 지금 스트라이크 존 정상화를 두고 끊임 없는 갈등이 펼쳐지고 있다. 선수와 심판, 선수와 선수 간의 오해와 불신이 상당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올해 출범 40주년을 맞아 스트라이크 존 확대를 결정했다. 리그의 질적 향상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볼넷 감소, 공격적인 투구와 타격을 유도해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스트라이크 존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러 잡음들이 쏟아지고 있다. 올 시즌 심판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다 퇴장 당한 선수는 1호 퇴장자인 이용규(37·키움 히어로즈)부터 최근 징계를 받은 하주석(28·한화 이글스)까지 22일 오전 기준 총 5명이다.

사실 스트라이크 존 판정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매년 이어졌다. 올해는



한화 이글스 수비수(오른쪽) 감독이 21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전에서 심판 판정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타자들의 불만이 많아졌다. 적용 시간이 짧아 적용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만큼 선수와 심판 모두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A 해설위원은 22일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2017년부터 도입된 비디오 판독은 그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지만 스트라이크 판정은 '불가침'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며 "이제는 이 부분도 비디오 판독 대상 범위에 포함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심판도 선수와 마찬가지로 사람이다. 스트라이크와 볼 판정을 100% 정확하게 식별하기엔 무리가 있다. 여기에 포수의 프레임업(포수가 스트라이크처럼 보이게 공을 잡는 기술)도 기술로 인정되어 정확한 판정을 내리기 더욱 어렵다. 이렇다 보니 '로봇처럼' 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KBO는 지난해부터 퓨처스 리그(2군) 일부 경기에서 자동 볼-스트라이크 판정 시스템(ABS)을 시범 적용 중이다. 판정 일정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가혹에 따른 투구 꺾적 시스템 오류나 실제 판정까지 이어지는 시간 등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현재 투입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하은(62) KBO 심판위원장은 "최근(스트라이크-볼 판정) 문제에 대해 알고 있다. 리그 전체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며 "앞에 주셨으면 하는 부분 우리가 일관성이 아닌 정확성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우런(71) KBO 총재는 9박 10

일의 밤미 일정을 마치고 20일 귀국했다. 허 총재와 KBO 리그 구단 대표들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운영-전략본부 수석 부사장 및 MLB 사무국 주요 수비수와 함께 로봇심판 도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마이너리그에서 시범 운영 중인 ABS의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등 현안을 공유했다. 로봇심판 도입은 KBO 리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구체적인 시기는 정하지 않았지만, 로봇심판 도입에 대체로 긍정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스트라이크 존 판정 불신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더 많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tbiz.co.kr

오늘의 KBO 리그 (23일 18:30)

팀명	구장	중계
한화	연희	T LG KBSN SPORTS
두산	인현	SSG SPOTV
키움	대주	S 삼성 MBC SPORTS+
롯데	영수	T KIA SPOTV2
NC	수원	KT SBS SPORTS

오늘의 날씨 WEATHER

서울 23/26 수평 22/25 춘천 21/25 강릉 22/28 인천 21/24 청주 22/27 울릉도 23/25 대전 23/27 대구 23/30 포항 24/32 전주 23/27 창원 22/27 부산 24/27 광주 23/28 부산 24/27 울산 23/28 제주 24/30

www.153weather.co.kr

내일 이후 날씨

지역	24일(금)	25일(토)	지역	24일(금)	25일(토)
서울	22/27	21/29	춘천	23/28	21/29
인천	21/25	20/26	강릉	22/27	23/31
수원	22/27	21/29	대구	24/30	24/32
대전	23/27	23/30	포항	24/30	24/32
광주	23/27	23/30	부산	22/25	22/26
전주	23/27	23/30	제주	25/28	23/29

류현진 없는 토론토 선발 붕괴... 트레이드 나서나

대체자원 스트리플링 제 몫 못해 기존 가우스만·마노아 등 부진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35) 없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토론토 블루재이츠가 위기에 봉착했다. 리그 내 최고 마운드를 자랑했던 위용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대권 도전에 위한 계획도 물거품이 될 지경에 놓였다.

토론토는 '윈너 무' 모드를 가동 중이다. 올 시즌 투수 핵심 자원인 로비 레이(31·시애틀 매리너스)와 마커스 세미라(32·텍사스 레인저스), 스티븐 마츠(31·

세인트루이스 카디날스)를 뽑지 못했다. 빠른 판단을 내려 빈자리를 메웠다. 프레이저트(F)로 풀려난 케빈 가우스만(31)과 지난 시즌 트레이드된 짐 호세 베리우스(28)를 잡았고, 일본인 좌완 기쿠치 유세이(31)도 데려왔다. 타선에선 올스타 출신 내야수 매트 채프먼(29)을 영입해 확실하게 보강을 마쳤다. 올 시즌 개막 전 메이저리그 홈페이지만 MLB닷컴이 발표한 파워랭킹에서 전체 2위에 올랐던 전력 상승이 기대됐다.

그러나 류현진이 부진 이탈을 기점으로 팀 전체가 붕괴 징조를 보이고 있다. 류현진이 부상자 명단(IL)에 등재된 이후

22일까지 9승 10패로 5할 미만 승률에 그치고 있다. 특히 선발진의 부진이 뼈아프다. 토론토는 류현진의 대체 자원으로 로스 스트리플링(33)을 1군에 뽑혔다. 초반 3경기에서 3승을 거두며 급한 불을 끄는 듯했다. 그러나 가장 최근인 18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3.2이닝 2실점으로 조기 강판돼 아쉬움을 남겼다. 가우스만, 스트리플링, 알렉 마노아(24), 기쿠치, 베리우스로 이어지는 선발진 최근 성적은 19.1이닝 20실점에 그쳤다. 이들이 한 차례 쿼를 도는 동안 선발승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MLB닷컴은 "토론토는 류현진이 빠진

이후 난관에 봉착했다. 불펜진들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트렌트 손튼(29), 제이미 비즐리(27), 맥스 카스트로(23) 등을 뽑혔으나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로스 헨킨스(48) 토론토 단장은 트레이드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캐나다 매체 '스포츠넷'과 인터뷰에서 "트레이드 카드를 구성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 앞으로는 계속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송재우(56) 본지 논평위원은 최근 본지와 통화에서 "토론토에는 류현진의 자리를 메울수 유망주가 없다. 스트리플링이 순항하고 있지만, 그 역시 한계가 뚜렷한 탓에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라며 "토론토가 자연스럽게 트레이드 시장으로 눈을 돌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tbiz.co.kr

Smart Economy sportbiz.co.kr

대표번호 02)725-6007 이메일 sportbiz@sportbiz.co.kr

구독/광고 02)738-9007 기사제보 02)725-7563 FAX 02)725-3939

발행인 권민진 송진현 총괄부장 김창집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길 7서씨벤처스빌 4층. 구독료 1부 700원 한달 13,000원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서울 가 50072